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Letter

우리가 받는 가장 큰 걱려는 바로 여러분들 얼굴에 피어나는 웃음입니다.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01 보험심사팀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 기획현지조사' 대비 간담회 개최

보험심사팀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기획현지조사(실사)'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7월말까지 진료부와 함께 향후 발생 가능한 처방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 과별로 기준이 까다로운 보험급여 항목과 보험급여 항목이지만 삭감률이 높아 본인부담으로 돌렸던 항목, 그리고 100/100 본인부담 항목에 대해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또 식약청 허가사항에서 벗어나 사용되었던 약제와 향후 보험급여 청구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까지 보험심사팀은 17개의 진료과와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미시행한 1~2개의 진료과와도 차후에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심사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진료과와 보험청구항목을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진료과에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과다하게 징수되었던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및 환수처분을 진행한 바 있다.

02 고객과 손을 맞잡고 소통해요

Happy Hospital Season5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본원은 지난 10일 <민화부채로 '나'와 소통하기>를 성황리에 마치고 오늘부터 <손 마사지로 '직원'과 소통하기>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캠페인은 본원 직원들이 1시간에 3명씩 조를 구성해 병원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직접 손 마사지를 해드리며 소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배정된 직원들은 미리 받은 손 마사지 동영상을 보며 방법을 익히고 지난 8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중강당에 모여 함께 실습을 하는 등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차례 연습시간을 가졌다.

캠페인을 주관하는 CS경영팀은 "손 마사지는 고객들과 손을 맞잡고 직접 소통하는 서비스인 만큼 직원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손 마사지로 '직원'과 소통하기> 캠페인은 오늘부터 이달 31일까지 약 3주간 본원 로비에서 오전 10시부터 2시간씩 진행된다.



03 교하高 의료동아리 본원 견학

의학계열 진학 목표 고교생을 위한 '전공 체험의 장' 마련

여름방학을 맞은 지역 고교생들에게 본원이 전공 체험의 장을 마련했다.

의학계열 진학을 목표로 구성된 교하고등학교 의료동아리 학생 15명이 지난 10일 본원을 방문했다. 본원은 다양한 의학계열 직종에 대한 정보와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생들과 현직 종사자와의 만남의 시간을 마련했다.

'의사, 한의사, 간호사와의 만남의 시간'에는 의학계열 진학 방법과 교육과정, 진로 적성 등에 대한 정보를 의료진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나누고,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학생들의 질문사항에 바로 답해주기도 했다. 또 학생들은 병동,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를 방문하며 실제 검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견학했다.

체험을 마친 한 학생은 "현직 병원 구성원들과의 현장감있는 대화로 병원 곳곳을 이해할 수 있었고 이번 체험이 의학계열 진학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04 본원 개원 7주년 기념 미니체육대회 실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교직원 미니체육대회를 개최한다. 개원 7주년을 맞이하여 교직원 상호간 소통과 화합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한 체육대회는 두 종목으로 구성된다. 남자 직원들은 족구, 여자 직원들을 탁구 대결을 펼치며 종목별 8개 팀이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하여 상위 3개 팀은 다음달에 열리는 개원기념식에서 시상하게 된다.

알 리 미

영화상영

제목 : 시체가 돌아왔다 | 일시 : 8월 16(목) 오후 1시 | 장소 : 5층 대강당